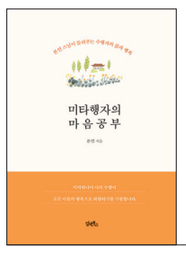
# 미타행자 본연 스님이 전하는 행복이야기



미타행자의 마음공부
본연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000원

**제주 토성 무주선원서 홀로 정진**
**매일 소중한 일상들의 단상 담아**
**잔잔한 글 안에서 행복을 고찰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도 항파두리 토성 자락에 위치한 무주선원. 그곳에는 미타행자 본연 스님이 홀로 정진 중이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수행자라면 그렇듯 빨리 시작한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새벽 2시 40분에 시작된다. 2시 40분에 일어나 3시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다리를 포개고 허리를 세워서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한다. 들숨을 깊게 하면서 가슴으로 온 중생을 끌어안으며 "일체중생의 고통을 다 거두어 주겠습니다" 날숨에 낱낱이 자비심을 방사한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이 만트라이자 진언이자 서원인 주문과 함께 시작된다. 이 마음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부처의 마음을 지어 나가면 언젠가는 증명하리라는 믿음으로, 다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반복한다.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마음에도 진심이 쌓이기 시작한다. 어느덧 "모든 이들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은 순수한 진심이 되고 그렇게 쌓인 공덕이 일체중생에게 미치어, 일체중생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4시 15분, 새벽예불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다. 6시, 새벽기도와 좌선 한 시간 후 아침 공양을 한다. 8시, 108배와 송주, 좌선, 사시기도까지 마치면 11시 30분이다.

점심 공양을 마치면 오후 울력이 시작된다. 수행 삼아 꽃과 나무 심고 물 주고 풀 뽑고 거름 주며 정진한 결과가 도량에 정직하게 드러난다. 말 그대로 극락도량이다. 법당과 마당을 오가며 틈틈이 은사스님 법어집 정리해 법공양 출판도 한다. 허튼 시간 없이 십여 년의 세월을 충실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무주선원이 아름답고 풍성해졌다. 하나부터 열까지 본연 스님 혼자 스스로 해나가며 만든 결실이다.

'미타행자'라는 명칭은 사형이 사제를 격려하기 위해 붙여준 별칭이다. 그렇기에 본연 스님은 오롯이 정진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번 책 〈미타행자의 마음공부〉는 본연 스님의 네 번째 이야기다. 〈미타행자의 편지〉 〈미타행자의 염불수행 이야기〉 〈미타행자의 수행한 담〉에 이어 이번에는 수행자의 삶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바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본연 스님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보석과 같은 귀한 마음을 지니고 일으키면 모든 시비(是非)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번뇌와 갈등, 망상을 걷어 낼 수 있다. 이 마음을 지니면 스스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 환희심으로 사바세계를 밝힐 수 있다.

사바세계를 밝힐 수 있는 마음을 본문에서는 이 같이 소개한다. 1장에서는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성이 도(道)이고 친절이 도이다. 자기의 업(業)에 정성을 들이고 모든 이에게 친절한 것이 바로 수행이다. 2장에서는 감사와 받아들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연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감사함을 느낀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부처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회향할 수 있는 신심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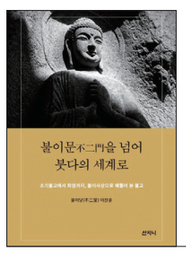
3장에서는 수행하는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량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는 것이 본연 스님의 수행이자 일상이다. 행복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4장에서는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함께하는 신도들, 큰 깨달음을 준 큰스님, 그리운 부모님 등 본연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함께해 준 이들이 있기에 수행자의 삶이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롯이 홀로 정진하는 본연 스님의 삶은 고독해 보일 수 있지만, 스님의 글을 좇으면 그 안에는 행복으로 충만하다. 원두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 8년간의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은 귤을 볼 때 느끼는 반가움은 범부들은 놓치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다. 본연 스님의 글은 우리의 삶 속에도 행복이 항시 존재함을 일깨운다.

▲저자 **본연 스님**은
'본연'은 전남 곡성 태안사로 출가했을 때 평생을 하루같이 용맹정진하다 열반한 청화 스님(1923~2003)이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맺으면서 내려 준 법명이고, 미타행자는 염불수행하는 사제를 격려하기 위해 사형스님이 지어준 별호다.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에서 4년간 경전을 공부하고 비구계를 받은 뒤 기도처와 선원을 오가며 정진하던 중, 큰스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2003년 서귀포 성산 자성원 주지를 자청하여 4년간 기도하며 차밭과 텃밭을 가꾸고 살면서 제주도와 인연이 시작됐다. 자성원 주지 소임을 놓은 뒤 다시 선원과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 자그마한 수행도량 무주선원을 열어 수행과 울력으로 극락도량을 일구고 있다.

# 不二사상으로 세상을 꿰뚫다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
이찬훈 지음
산지니/ 3만8000원

불이(不二). 부처님이 깨진 마음자리, 대립을 떠난 경지를 의미한다. 이는 〈유마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마 거사를 병문안 간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이의 뜻에 대해 서로 토론하게 됐다. 이 토론에 참가한 제자가 무려 32명이었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이같이 정리했다.

"불이란 말로 설할 수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인식할 것도 없어서 일체 문답을 떠난 절대 평등의 경지다."

그러나 여기서 문수는 불이란 사유와 언어를 초월한 것이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설하면서 그 자신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최후로 유마 거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유마 거사는 오직 침묵한 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유마 거사는 침묵으로 불이의 세계를 내보인 것이다.

불이사상을 연구해 온 이찬훈 인제대 인문문화학부 교수의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는 불이사상을 불교의 핵심사상이라 보고 불교 전체를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나의 것, 나의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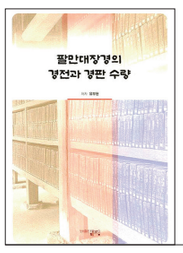
이 책의 1부는 니까야에 담긴 연기론, 사법인, 사성제 등 초기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설명하고 불이사상을 논한다. 2부는 〈아비달마구사론〉을 중심으로 부파불교를 논하고 대승불교의 반야공사상과 유식사상, 대승기신론사상을 다룬다.

3부에서는 〈화엄경〉과 화엄사상을 불타관, 법계관, 보살관을 중점으로 서술하여 불이사상의 심화 과정을 밝히며 4부는 불이와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4부다. 불교를 관념적인 종교로만 논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중요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활용하고 있어서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개인의 내면적 변혁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종교를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간주한다면 종교를 통해 얻는 깨달음은 현실과 점차 유리될 것이다.

우리는 불교에서 우리 삶과 시대에 적합한 관점을 분별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다가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 팔만대장경 경판 수량은 얼마일까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
유부현 지음
해조음/ 3만원

한국불교 문화유산 중 기록문화유산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정말 경판의 수에 대한 정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8만여 경판에 이른다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를 뿐이다.

유부현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발간한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은 팔만대장경의 경판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한 10년간의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다.

유 교수는 저작을 통해 팔만대장경의 경전 전체 수량을 1546종 6796권 664질로 산정했다. 경판은 총 8만1350판인데, 이를 입장판·중복판, 원각판·중각판으로 분류하면 △입장판 8만 1238판·중복판 112판 △원각판 8만 1232판·중각판 118판이다. 순수 고려대장경 경판은 7만 8371판이다.

책은 총 5부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대장목록'에 기재된 경전의 경명과 권수 및 재조장에 수록된 모든 경전과 그 권수를 조사한 다음 전산처리를 통해 독립된 경전의 종수와 권수를 산출했다. 2부에서는 팔만대장경 경전을 구성별로 그 수량을 산출하고 팔만대장경의 전체 경전 수량을 산정했다.

3부에서는 팔만대장경의 경판 전체 수량을 입장판과 중복판, 원각판과 증각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체 수량에 대한 기존의 발표 결과를 분석했다. 4부에서는 '대승대교왕경'의 '분사대장도감판'과 '대장도감판'의 문자이동 및 저본과 판각 그리고 '분사대장도감판'의 간기와 각수 등에 대해 고찰했다. 마지막 5부는 여론(餘論)으로 2013년 7월 보물로 지정된 '내전수함음소'에 대해 소개했다.

유 교수는 "이 책에 발표된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이 향후 정론적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전과 경판 수량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 운암 김성숙 저술 망라 첫 걸음



운암김성숙 전집1: 저술편
김재욱, 이진명, 방준호 옮김/ (사)운암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 엮음/ 소명출판/ 3만5000원

운암 김성숙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98년 음력 3월 3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림면 강암동에서 태어나 독립과 민주공화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봉선사 승려로서 3·1운동에 참여하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출판물 편집과 이론가로 활동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1945년에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분단 극복과 민주공화 구현에 헌신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표창을 청구하지 않았고, 생전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1969년 4월 12일 71세의 나이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 피우정(避雨亭)에서 별세했다.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고 2004년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그의 삶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저서와 저술이 조명받지는 못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엮은 〈운암 김성숙 전집1〉은 이를 조명하기 위한 첫발이다. 편찬에는 신주백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전문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신중일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전 세계 명상 교육·연구의 중심지 브라운대학교가 개발하고
카이스트 명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과학적인 명상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을 소개하다
(Mindfulness-Based College, MBC)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에릭 B. 룩스 지음 |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윤희 옮김
320쪽 | 20,000원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